

“인공지능 기술로 미래 설계”... ‘아이콘 광주’ 개막

광주시, 세계적 AI학술회의 개최 내달 1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서 강연·북콘서트·전시·체험존 다채 강 시장 “AI 대표도시 광주 육성”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고 세계적 협력을 도모하는 ‘인공지능 학술회의’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30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에서 세계적 인공지능 학술회의인 ‘아이콘(AICON) 광주 2024’를 개막했다. 학술회의는 오는 11월1일까지 사흘간 계속된다.

‘세상의 AI, 빛나는 이곳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주관한다.

광주시는 이 학술회의가 기업·학계·기관은 물론 시민의 참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시민 일상에 AI가 스며드는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로 한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광주 인공지능의 미래를 담은 주제영상 상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중심으로 광주가 세계로 도약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세리머니가 펼쳐졌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 특임교수인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는 인공지능(AI) 기업들의 기술을 접목한 콜라보 공연으로 행사 개막을 축하했다.

강 시장은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아이콘 광주’에서 AI에

대한 새로운 화두와 실천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공유되길 바란다. 그 결과물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연결돼야 한다”며 “광주는 AI 인프라, 기업, 인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도시로, 지역기업과 시민의 일상에 AI가 자리잡는 ‘모두의 AI 대표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개막식이 끝나고 인공지능(AI) 전시부스에서 AI 집적단지와 AI 데이터센터 운영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역기업의 AI 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했다.

세계적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특별강연도 펼쳐졌다.

티모시 파판드레우 미국 이머징 트랜스포트 어드바이저스(Emerging Transport Advisors)의 최고경영자(CEO)가 ‘AI와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정지훈 대

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가 ‘AI 패러다임의 전환과 AI 산업융합생태계’를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을 했다. 또 크리스토퍼 데이즈 독일 디에이치엘(DHL) 부사장은 ‘광주에 대한 AI 혁신 제안’에 대해 특별 강연했다.

‘아이콘 광주 2024’는 7개국 30여명의 인공지능 전문가 강연을 통해 ‘초거대 AI’, ‘AI 클러스터’, ‘AI 반도체&온디바이스’ 등 국제 인공지능 동향과 미래전망을 공유한다.

특히 마지막 날인 11월1일에는 ‘AI 비즈니스’, ‘AI 미래포럼’, ‘AI 윤리’ 등 기업 관계자와 시민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주제를 다룬다.

같은 날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이 ‘2025 AI 대전환 : 주도권을 선점하라’를 주제로, 배순민·오순영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AI 미래포럼 공동의장이 ‘생각이 크는 인문학’과 ‘AI시대 부의 지도’를 주제로 오후 4시부터 잇따라 북콘서트가 열린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토론회’와 인공지능 클라우드에 관한 기술세미나도 진행된다.

시민들이 인공지능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부스와 시민 체험존도 마련됐다. 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 내부에 마련된 전시부스에서는 AI 캐리커처, 무인매장 점원로봇, AI 향수 추천 등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오희관 앞 광장에 마련된 시민 체험존에서는 움직이는 AI 그림, AI 타로, AI 조리로봇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콘 광주 2024’ 문의와 온라인 참여는 공식 누리집(aicon2024.com)에서 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신세계가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27일 본관 1층 광장에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대형 부스를 설치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노벨상’ 한강 작가 대표 작품 전시

광주신세계가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부스를 설치해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본관 1층 광장에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대형 부스를 설치했다. 가로×세로 각각 4m, 2.4m 크기의 대형 부스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소

년이 온다 표지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부스 앞면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흰’ 등 대표 작품 11권이 전시돼 있다.

광주신세계는 소개 글을 통해 작가의 작품세계와 수상 내역, 2024년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나다운 기자

광주은행, ‘KIA 우승기원 예·적금’ 우대금리 확정

예금 연 0.25%p·적금 0.45%p 제공

광주은행은 지난 7월 31일 판매 종료된 ‘KIA 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 가입 고객을 위한 우대금리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예·적금은 매년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출시되는 광주은행 대표 스포티셀러 시즌 상품으로, 지난 2018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야구팬 고객층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으며, 올해에는 KIA의 통합 우승과 함께 재조명되고 있다.

예금상품의 경우, KIA가 2024 포스트 시즌 진출과 정규시즌 우승에 이어,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확정 지음에 따라 △포스트시즌 진출(연 0.05%p) △정규시즌 우승(연 0.10%p) △한국시리즈 우승(연 0.10%p)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해 만기해지 시 총 연 0.25%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적금상품의 경우, 예금상품과 동일한 연 0.25%p의 우대금리와 함께 KIA가 정규시즌 중 8연승(연 0.10%p), 팀홈런 100개 이상(연 0.10%p) 기록을 달성해 만기해지 시 총 연 0.45%p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은 지역에 연고를 둔 스포츠단



광주은행이 지난 7월 31일 판매 종료된 ‘KIA 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 가입 고객을 위한 우대금리를 확정했다. **광주은행 제공**

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야구·축구·양궁 등 스포츠 종목에 금융 상품을 접목시킨 연계상품을 출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출시한 ‘TenTen양궁적금’은 국제 스포츠대회 종목 중 양궁(리커브) 경기에서 ‘광주은행 텐텐(TenTen) 양궁단’ 소속인 안산, 최미선 선수의 활약으로 0.8%p의 우대금리를 제공했으며, 올해 3월에는 K리그1 시즌에 맞춰 광주FC의 선전을 기원하고자 패키

지 상품인 ‘광주FC적금’과 ‘광주FC체크카드’를 출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KIA가 37년 만에 홈구장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지역민에게 뜻깊은 감동을 선사했다”며 “KIA의 시즌 통합 우승의 기쁨을 고객의 금융 혜택으로 나눌 수 있게 돼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지역의 금융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삼성전자, 키자니아에 어린이 ‘갤럭시 AI’ 체험 공간

삼성전자가 어린이들을 위한 ‘갤럭시 AI’ 체험 공간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서울 잠실점에 ‘AI 비밀 분부 체험관’을 31일 오픈한다.

체험관은 어린이들이 ‘AI 비밀요원’이 돼 키자니아의 대표 캐릭터 ‘바체’를 구출하는 콘셉트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갤럭시 Z 플립 6의 다양한 AI 기능을 활용해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조작이 미숙한 어린이도 손쉽게 ‘갤럭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SECRET AGENT’ 앱을 별도 제작했다.

체험관에 입장한 어린이들은 가장 먼저 ‘갤럭시 AI’를 활용해 요원증 사진을 촬

영하게 된다. 촬영된 사진은 ‘인물사진 스튜디오’를 활용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3D 캐릭터, 수채화 등 다양한 스타일로 변환할 수 있다.

체험관에는 ‘갤럭시 Z 플립 6’의 AR 필터를 활용해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체험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요원 뱃지와 키자니아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10키조를 증정한다.

인증 사진을 SNS에 업로드한 참가자는 요원증, 뱃지 케이스 등 특별한 굿즈를 받을 수 있다. 체험관을 4회 이상 방문해 요원 뱃지 4개를 모두 획득한 어린이에게는 갤럭시 신제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키자니아 갤럭시 체험관은 2027년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현대차, 첫 전동화 대형 SUV ‘아이오닉 9’ 티저 공개

내달 디자인·상품성 등 공개 행사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동화 대형 SUV인 ‘아이오닉 9’ 티저 이미지를 30일 공개했다.

아이오닉 9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현대차의 세 번째 모델로,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로 성장을 견인할 전동화 SUV 모델이다.

차명인 아이오닉 9는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명명 체계에 따라 전용 전기차 라인업인 ‘아이오닉(IONIQ)’에 대형 차급을 의미하는 숫자 ‘9’를 결합해 완성했다.

이날 현대차가 공개한 아이오닉 9 티저 이미지는 차량의 실루엣과 전면부 램프, 캐릭터 라인, 휠의 모습을 담고 있다.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은 물의 저항을 최



소화하는 날렵한 외관과 넓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동시에 품고 있는 보트(Boat)에서 영감을 받았다. 티저를 보면 차량 앞 좌석부터 뒷좌석까지 모든 탑승자가 넉넉한 헤드룸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유려한 곡선으로 설계된 루프 라인은 긴 휠베이스와 어우러져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음을 암시한다.

현대차는 다음달 아이오닉 9의 디자인, 상품성 등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9는 에어로 스테틱 실루엣을 통해 전동화 대형 SUV 디자인을 재정의했다”며 “공기역학적 인성능과 세련된 아름다움의 완벽한 융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